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urope

Asia

North  
America

Oceania

Africa

South  
America

KIEP 기초자료

17-06

2017년 11월 22일

# 중국 고령친화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상하이, 산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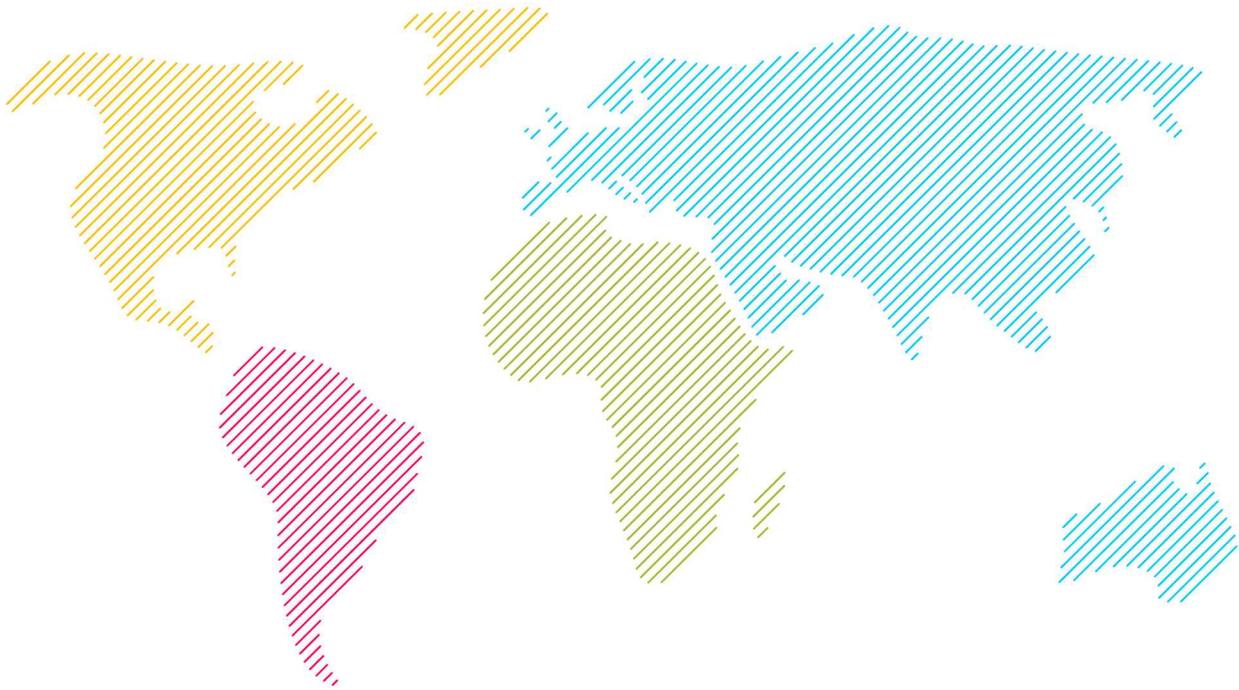
박진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 중국 고령친화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상하이, 산둥을 중심으로

## 요약

- ▶ 중국은 빠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장 수요가 늘고 있으나 해당 산업의 발전 초기단계이며, 정부정책은 공공복지 성격이 강한 양로서비스 분야 육성에 집중되어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5년 10.5%로, 2025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이에 노년층 잠재소비력이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전망
  - 다른 선진국과 달리 1인당 GDP가 1천 달러 미만인 상황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며, 산업 육성정책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양로서비스 육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음.
- ▶ 최근 중국의 양로서비스 육성정책은 △ 민간·외자 양로서비스기관 진출 촉진 △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발전 △ 양로 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스마트 양로서비스 발전을 강조
  - 2014년부터 외국투자자에 독자 영리성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을 2014년 허용하고 정부 보조금 등 혜택이 많은 비영리 양로서비스기관 설립도 2016년 이후 허용
  - 집에서 요양하고자 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은 편이어서 방문간호·데이케어서비스와 같은 양로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양로서비스기관 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ICT기술을 활용한 양로서비스 발전에 노력
  - 상하이시는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확대와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육성에 주력하며,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노인들이 양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산둥성은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한편 노인용품 제조기지로서 제품 다양화에 힘쓰고 있음.
- ▶ 협력 유망지역인 상하이시는 고급·첨단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 산둥성은 동부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대상 양로서비스 및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협력 수요가 높을 것
  - 중국은 지역간 고령화 격차가 커, 상하이, 산둥, 저장 쓰촨, 랴오닝과 같이 고령화 진전이 빠르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도 큰 지역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상하이시는 고령화율과 고령화 진전 속도가 가장 높고 양로서비스 이용 노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커 고급·첨단 양로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외자기업 진출이 활발해 경쟁이 심한 편
  - 산둥성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나 소득수준이 상하이 등지보다 떨어지므로 칭다오·웨이하이 등 역내 고령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도시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양로서비스 진출이 적합하며, 노인질환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수요가 클 것
- ▶ 우리 기업은 중국정책 역점인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및 양로서비스 관련 의료서비스, 첨단 노인용품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양로서비스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점에 주의해야 함.
  - 중국은 간호인력이 부족하며 치매 노인 케어와 같은 전문 간호기술을 갖춘 기관이 부족해 전문 간호기술을 보유한 방문간호서비스 기업, 간호인력 교육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중국 양로서비스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재활·심혈관 등 의료서비스의 협력 기회가 클 것이며, 첨단 기술이나 특수 디자인을 갖춰 요양시설 내 노인 편의를 확대하는 용품, 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가정용 헬스케어 기기나 휴대용 건강검진기기 등의 수요가 높을 것



## 차 례

### 1. 연구 배경

- 가. 중국의 고령화와 고령친화산업 현황
- 나. 지역별 고령화 수준 및 연구대상 지역 선정

### 2. 주요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가. 상하이(上海)
- 나. 산둥(山東)

### 3. 외자기업 진출 사례

- 가. 중상류층 타겟의 고급 서비스시장 진출:  
에머리투스(상하이), 창려(산둥)
- 나. 정책 수요 맞춤형 진출:  
니치가칸(상하이, 산둥 등), Active Global(상하이)
- 다. 우수한 기술과 합리적 가격을 활용한 진출:  
바이오웰니스(상하이)

###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연구 배경

### 가. 중국의 고령화와 고령친화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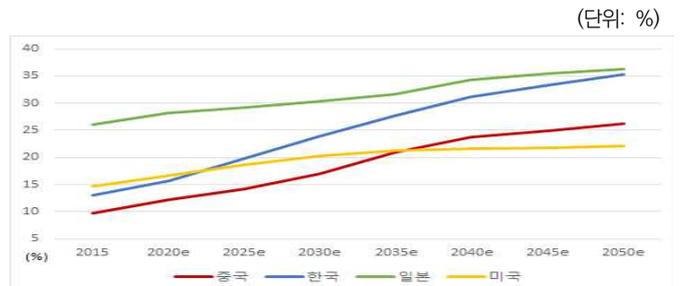
■ 중국은 경제발전에도 따른 수명 증가와 산아제한정책 등으로 인한 출생률<sup>1)</sup>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0.5%에 달함.

- 중국의 기대수명은 1990년 68.5세에서 2015년 76.3세로 증가하였으며, 한자녀 정책이 실시된 1980년대 초 약 20%에 달했던 출생률은 2015년 12.07%로 감소<sup>2)</sup>
- 2015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 4,386만 명으로 1990년(6,368만 명, 전체 인구의 5.6%)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3억 명(전체 인구의 20.9%)에 달할 전망
-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UN 인구국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고령사회에, 203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sup>3)</sup>

그림 1. 중국 노인인구 및 비중(1990~2035)



그림 2. 주요국의 노인인구 비중 전망(2015~50)



주: 2020~2050년 수치는 UN 인구국의 전망치임.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 201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https://esa.un.org/unpd/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 글상자 1.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통용되던 '실버산업'의 '실버'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에 우리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공식 용어로 쓰고 있음.
-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분류·정의하고 있음.

1) 연간 인구 천 명당 출생한 신생아 수(단위: %, 퍼밀). 중국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지표가 아닌 출생률 지표를 집계·공표함.

2) 『중국국가통계연감 2016』.

3)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고령화율을 계산하며, 고령화율이 7% 이상~14% 미만인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인 경우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빠른 고령화에 따라 중국사회에서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未富先老)’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 선진국은 보통 노인 관련 경제적·사회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1인당 GDP 5천~1만 달러 수준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반면, 중국은 1인당 GDP가 1천 달러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함.<sup>4)</sup>
-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인 데 비해 중국은 35년에 불과<sup>5)</sup>
- 중국의 고령화문제 관영 연구기관인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는 2014년 약 4조 위안 규모인 중국 노년층 잠재 구매력<sup>6)</sup>이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하여, 고령친화산업이 점차 발전할 것이라 전망

■ 2014년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노령산업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 노인용품 △ 노인서비스 △ 노인 부동산 △ 노인 금융서비스 4개 분야로 분류됨.

- 중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노령산업(老龄产业)’, ‘노년산업(老年产业)’, ‘양로산업(养老产业)’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산업 개념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통일된 산업 정의 및 분류, 통계지표가 미비하여, 일부 연구기관이나 기업 보고서에서 임의로 산업을 분류하거나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 노인용품은 △ 노인용 식품·목욕용품 등의 일용품 △ 노인용 건강식품 △ 노인용 의류 △ 보청기, 휠체어 등의 생활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 의약품 △ 노인용 핸드폰 및 위치추적기 등의 전자제품 △ 노인용 잡지, 완구 등의 문화용품 △ 장례용품으로 구성
- 노인서비스는 △ 양로서비스 △ 의료서비스 △ 관광서비스 △ 문화체육 및 법률서비스 등이 해당
- 노인 부동산은 노인주택, 양로복합단지 등을 개발·운영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노인 금융서비스는 노인용 저축상품 및 보험 등 금융상품을 가리킴.

■ 중국의 고령친화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 노인용품의 경우 일부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로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져 해외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존재<sup>7)</sup>

-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은 2009년 4억 9천만 개에서 2014년 24억 7천만 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노인용 건강식품은 전체 건강식품 시장에서 50%의 압도적인 비중 차지<sup>8)</sup>
- 전자제품의 경우 노인용 핸드폰, 위치추적기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아 외국제품을 선호하며, 장례용품 중에서는 친환경적인 일본, 대만 제품의 인기가 높음.<sup>9)</sup>
- 노인용품에 대한 표준규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악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발전에 제약이 있음.<sup>10)</sup>

4) 선우덕(2012), 「중국의 고령화시대, 새로운 시장 만든다」, POSRI Chindia Journal, Vol. 73.

5) 「老龄化的危与机」(2011. 6. 23), 凤凰网.

6) 노년층 잠재 구매력은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가 2014년 고령친화산업에 관해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에서 제시한 수치로, 노년층 잠재 구매력을 1인당 가처분소득×노인인구×1.2(노인소비성향지수: 자산소득, 정부보조금, 사회보장금 등으로 인해 노인의 소비성향이 일반인보다 약 1.2배 높다고 추정)로 계산함. 현재 중국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일부 보고서가 노년층의 잠재 구매력으로 중국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1인당 가처분소득 지표를 활용하여 노년층의 잠재 구매력을 추산함.

7)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8) 강민주(2017), 「中, 고령화시대에 성인용 기저귀시장 고속 성장」, KOTRA 해외시장뉴스;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9)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표 1.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분류 및 분야별 현황

구분	발전 현황	
노인용품	일용품	- 종류: 노인용 식품·음료, 목욕용품, 요실금 용품 등 - 식품·음료 외에는 제품 생산·개발 수준이 낮음.
	건강식품	- 1980년대부터 수요 급증, 특히 노인용 건강식품 비중이 50% 정도로 높은 편
	의류	- 제품 종류가 적고 의류회사의 제품 개발·판매 관련 투자가 적은 편 - 일부 지역에 전문매장이 생겼으나 대부분 영세하며,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음.
	생활보조기기	- 종류: 보청기, 휠체어, 재활기기 등 - 일부 의수·의족, 자동집노기 등을 제외하면 기술수준이 낮음.
	의료기기	- 종류: 건강측정용품, 물리치료용품 등 - 재활병원, 노인병원 등 관련 병원 개설이 더더 의료기기산업 발전 지체, 향후 병원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
	의약품	- 2012년 노인약품 판매액이 6,000억 위안 정도로 수요가 높음. - 외국약품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음.
	전자제품	- 종류: 노인용 핸드폰, 위치추적기, 저주파치료기 등 -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이 많아 외국제품 사용이 많은 편
	문화용품	- 종류: 노인용 잡지, 도서, 완구 등 - 일부 잡지의 판매가 늘고 있으나, 주로 경제력 있는 노인이 이용하는 분야로 아직 시장이 크지 않음.
	장례용품	- 종류: 수의, 관, 납골함 등 - 다만, 일본의 첨단기술 활용·친환경적 장례용품 인기
노인서비스	- 종류: 양로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문화체육·법률서비스 등 -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부족, 재가 양로서비스 인력·기술 부족, 민영 양로서비스기관 발전 지체 - 관광시장에서 노인 관광객 비중이 25%로 높은 편	
노인 부동산	- 종류: 노인주택, 양로복합단지 등 - 2000년대 후반부터 노인 부동산 개발 붐	
노인 금융서비스	- 종류: 노인용 저축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 발전 미약, 저축상품만 활성화	

자료: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 2000년대 후반부터 노인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양로서비스업은 관련 시설과 인력·기술이 부족한 편

-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개발업체가 노인 부동산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대도시를 위주로 노인주택, 양로복합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는 등 노인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났음.<sup>11)</sup>
- 중국의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는 2015년 노인 천 명당 30개 수준으로 국제 표준(노인 천 명당 50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치매 등의 질환을 가진 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sup>12)</sup>

■ 중국정부는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며 주로 양로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음.<sup>13)</sup>

10) 산둥성 사회과학원 인구학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11)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상하이 Active Global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12) 中国国务院(2017), 『“十三五”国家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 兴业证券(2016), 『养老行业点评: 全面放开养老服务市场, 推进宜居老年环境建设』; 상하이 Active Global 관계자 인터뷰(2017. 7. 20).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같은 종합적인 산업 육성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노령사업발전 계획'과 같이 공공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에 양로서비스업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표 2. 중국의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

정책문건명	발표연도	주요 내용
노령사업발전 12.5 계획 (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	2011	- 양로보장시스템 구축 - 노인병원, 요양원, 노인재활병원 등 노인의료시설 확대 -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서비스 육성,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노인 천 명당 30개로 확대 -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 용품·서비스 개발 촉진, 노인관광서비스 개발
양로서비스업 빠른 발전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2013	- 양로서비스 시설 확충, 민영·외자 양로서비스기관 건설 장려 - 양로서비스 소비시장 육성: 재활기기·식품·약품·의류 등 노인용품 개발 지원, 금융상품 개발, 양로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자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관련 공고 (外商投资设立营利性养老机构有关事项的公告)	2014	- 외자 독자 방식의 영리성 양로서비스기관 설립 허용 - 외자 양로서비스기관 설립 관련 행정절차 일원화·간소화 - 재가 양로서비스 수준 제고, 인터넷을 활용한 양로서비스 육성 - 노인용품 품질 제고, 노인 금융상품 개발
외국인투자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	- 외자 양로서비스기관을 투자 '제한업종'에서 '장려업종'으로 변경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양로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의견 (关于全面放开养老服务市场提升养老服务质量的若干意见)	2016	- 양로서비스기관 설립 절차 간소화 - 외자 비영리 양로서비스기관 설립 장려, 내자 기관과 동등한 혜택 제공 - 2020년까지 공립 양로서비스기관 비중 50%로 축소
노령사업발전 및 양로시스템 건설 13.5 계획 (十三五国家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	2017	- 의료·양로 보험 가입을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 -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기능 강화, 인터넷 활용한 양로서비스 시스템 강화, 노인 병상 중 요양 병상 수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공립 양로서비스기관 개혁, 민영 양로서비스기관 확대, 민영 양로서비스기관의 지점 설립 허용, 양로서비스 수준 제고 - 의료·양로서비스 융합 추진, 노인 의료·재활간병 서비스 강화 - 노인 소비시장 육성: 양로서비스와 헬스·문화·여가 서비스 융합 강화, 노인용품 제조기술 제고, 노인용품 전시 체험장소 운영 장려
스마트 건강·양로 산업 발전 행동계획 (智慧健康养老产业发展行动计划)	2017	-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스마트양로시범기지 건설 - 건강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휴대용·셀프 건강검진 디바이스, 스마트 간호기기, 가정용 로봇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재가 양로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인터넷 건강컨설팅, 생활케어 서비스 육성, 실족 감지 센서·노인 행동 분석시스템 등 양로서비스기관 정보화

자료: 「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 「“十三五”国家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 등 각 문건.

- 최근 중국의 양로서비스 육성정책은 △ 민간·외자 양로서비스기관 진출 촉진 △ 재가·커뮤니티(社區)<sup>14)</sup> 양로서비스 기능 강화<sup>15)</sup> △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醫養結合) △ 스마트 양로서비스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13) 중국은 아직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령친화산업을 양로서비스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으며, 고령친화산업 관련 통계도 거의 없는 상황임. 산둥성 사회과학원 인구학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14) 우리나라의 동(洞)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임.

15)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크게 재가 양로서비스, 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시설 양로서비스로 나뉨. 재가 양로서비스는 노인이 집에 머무르며 받는 방문 가사 활동·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커뮤니티 양로서비스는 데이케어센터(日间照料中心)·간병소(护理站) 등 집 근처의 소형 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급식·

- 양로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자본의 진출을 독려하는 한편, 2014년 외자 독자기업의 영리성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2016년에는 외자 비영리 양로서비스기관 설립도 허용
    - o 이전에는 외국투자자가 양로서비스기관을 설립할 때 독자 진출이 불가했고, 담당 부처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중국시장 진입 및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많은 비영리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등 차별이 있었음.
  - 양로원·요양원 등의 양로서비스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인이 집에 머무르며 케어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간호·급식·목욕서비스와 데이케어센터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집 근처 양로서비스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o 이는 중국의 전통사상에 따라 집에서 케어 받기를 원하는 노인이 많고, 양질의 양로원을 단기간에 대거 확충하기 어려우며, 기존 양로원의 서비스 수준이 낮거나 시 외곽에 위치해 이용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임.
  - 노인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로서비스기관 내에 재활병원·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양로서비스기관과 병원 간 진료 협력 채널을 구축하도록 독려
  - 온라인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이상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건강검진 디바이스, 위치추적기, 가정용 로봇 등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양로서비스기관에 실족 감지 센서·노인 행동 분석시스템 등의 기능을 확대해,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실현하면서 양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외에 양로서비스와 헬스·문화·여가 서비스 융합 강화, 재활기기·식품·약품·의류 등 노인용품 제조 기술 제고, 노인 금융상품 개발, 노인용품 전시·체험 장소 확대 등을 통한 노인 소비시장 육성에 노력

## 나. 지역별 고령화 수준 및 연구대상 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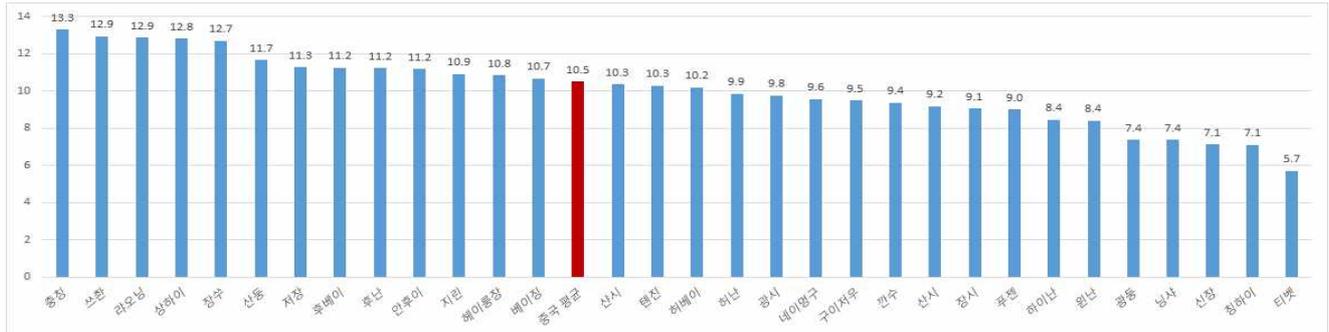
-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산아제한정책 추진 강도, 노동인구 유동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현상의 지역별 편차가 큼.<sup>16)</sup>
- 2015년 기준 충칭(重庆), 쓰촨(四川), 랴오닝(辽宁), 상하이(上海), 장쑤(江苏)는 고령화율이 12% 이상인 데 반해 티베트,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닝샤(宁夏), 광둥(广东)은 고령화율이 7.5% 미만임.
    - o 고령화율이 13.3%로 가장 높은 충칭은 50~70년대 25%를 상회했던 출생률이 산아제한정책으로 10%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이며, 두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쓰촨은 중국 31개 성 중 노동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임.
    - o 상하이, 장쑤 등 경제발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은 기대수명이 길고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여 전반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음.
    - o 티베트, 칭하이, 신장은 소수민족 자치 지역으로 산아제한정책이 엄격히 시행되지 않았음.
    - o 광둥의 선전(深圳)은 '이민도시'로 불리울 정도로 노동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동부 연해지역과 다르게 고령화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임.

간단한 의료서비스 등을, 시설 양로서비스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비교적 장기간 케어를 받는 것을 가리킴. 현재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9073(양로서비스 수요의 90%를 재가 양로서비스로, 7%를 커뮤니티 양로서비스로, 3%를 시설 양로서비스로 커버)'을 목표로 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

16) 韩枫(2017), 「中国人口老龄化地区差异收敛的解释」, 『老龄科学研究』, Vol. 5, No. 3.

그림 3. 중국 지역별 고령화율(2015)

(단위: %)



자료: CEIC Database.

■ 본고에서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중 최근 고령화율 진전이 빠르고 노년층의 잠재 구매력도 큰 지역을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상하이와 산둥을 대상으로 지역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 특징을 분석함.

-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는 2015년 고령화율 상위 10개 지역 중 2010, 2015년 고령화율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sup>17)</sup>
- 산둥은 고령화율과 고령화율 증가속도가 중국 평균보다 높은 9개 지역(산둥·저장·쓰촨·상하이·랴오닝·후베이·베이징·헤이룽장·지린) 중 노년층 잠재 구매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2015년 기준 약 3,128억 위안),<sup>18)</sup> ‘양로서비스산업 시장화 발전 시범지’, ‘전국 양로서비스 종합개혁시범지’,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시범지’ 등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고령화정책을 추진

표 3. 고령화 수준에 따른 중국 지역 분류

구분	해당 지역
고령화율이 높고 고령화 진전도 빠른 지역	산둥, 저장, 쓰촨, 상하이, 랴오닝, 후베이, 베이징, 헤이룽장, 지린
고령화율이 높으나 고령화 진전은 빠르지 않은 지역	장쑤, 후난, 안후이, 충칭
고령화율이 낮으나 고령화 진전은 빠른 지역	허난, 허베이, 장시, 산시, 네이멍구, 텐진
고령화율이 낮고 고령화 진전도 느린 지역	광둥, 푸젠, 광시, 윈난, 산시, 구이저우, 간수, 신장, 하이난, 닝샤, 칭하이, 티벳

주: 1) 파란색 표시 지역은 노년층 잠재 구매력 상위 10개 지역임(2015년 기준).

2)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노년층 잠재 구매력 크기에 따라 배열함.

■ 또한 본 연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중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 도입을 가장 장려하는 분야이자 시장의 성장 속도와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인 양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육성정책 및 외자기업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sup>19)</sup>

17) 상하이 노령과학연구중심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18) 노년층 잠재 구매력은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의 계산법을 따라 1인당 가처분소득×노인인구×1.2(노인소비성향지수)로 계산. 본 계산법에 따르면 장쑤(3,588억 위안), 산둥(3,128억 위안), 광둥(2,674억 위안)의 노년층 잠재 구매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2015년 기준).

19) 이봉걸, 홍정화(2014), 「새로운 블루오션 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KITA 국제무역연구원.

## 2. 주요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가. 상하이(上海)

#### 1) 고령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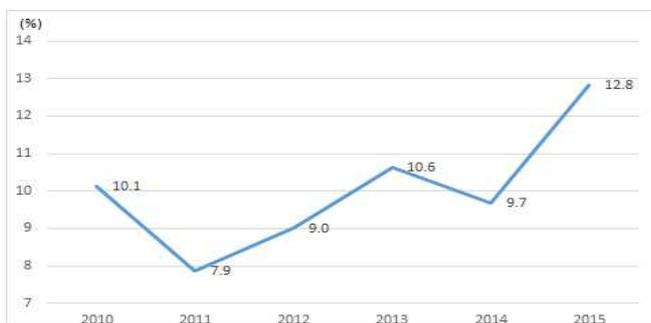
■ 2015년 상하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09만 6천 명이며, 고령화율이 12.8%로 중국 최고 수준

- 고령화율이 2010년 10.1%에서 2015년 12.8%로 빠르게 상승, 중국 대표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중 상하이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음.
- 상하이시 민정국(民政局)이 집계한 호적인구 기준 통계로는 고령화율이 19.6%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sup>20)</sup>
  - 대도시인 상하이에는 일자리를 위해 외지에서 유입된 노동인구가 많으며, 이러한 외지 출신 인구 중 상하이 호적(戶口)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은 상주인구 기준 통계에는 포함되나 호적인구 기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 때문에 상하이시는 호적인구 기준 고령화율이 상주인구 기준 고령화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60~69세(저령노인)가 58%에 달할 정도로 저령노인 비중이 높아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상하이의 고령화율은 일본을 넘어설 예정<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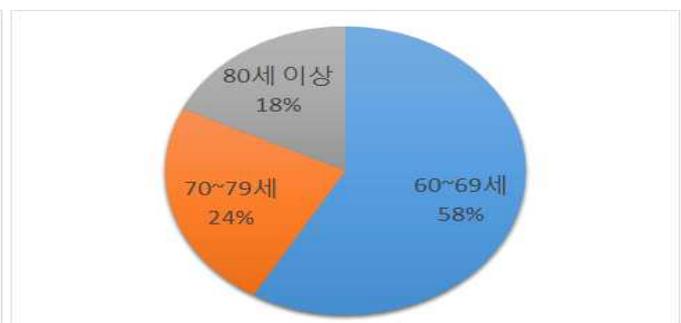
- 상하이시노령과학연구센터는 2010~25년에 상하이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2030년에 호적인구의 40%, 2040년에 호적인구의 44.5%에 달해, 일본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세계 최고 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sup>22)</sup>

그림 4. 상하이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2010~15)



자료: CEIC Database.

그림 5. 상하이시 노인인구 연령별 분포(2015)



자료: 上海市民政局(2016), 「上海市老年人口和老龄事业监测统计信息」.

20) 上海市民政局(2016), 「上海市老年人口和老龄事业监测统计信息」.

21) 「上海籍人口老龄化比例将超日本 2050年或达44.5%」(2016. 7. 5), 新华网. 중국 전체 저령노인 비중은 56.1%.

22) 상동.

##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상하이는 양로서비스기관이 총 702개(2016년)에 달하나 노인 천 명당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하이 정부는 병상 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령화율과 소득이 높아 외자 양로서비스기관의 진출이 중국에서 가장 활발<sup>23)</sup>

- 상하이시 노인 천 명당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는 27.2개로 전국 평균(30.3개)보다 다소 낮음(2015년 기준).
- 상하이시 2016년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는 130만 3천 개로 전년대비 7.3% 크게 증가(전국 평균 증가율 5.3%) 하였으며, 2020년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를 15만 9천 개로 확대할 계획
- 중국정부의 양로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장려정책이 시행(2013년)되기 전부터 독일 양로원, 미국 양로단지가 진출을 시도했으며, 현재 미국 포트레스(Fortress)가 투자한 고급 대형 양로단지, 일본 리에이(Riei) 양로원 등이 진출해 있음.
- 유럽, 일본, 미국 기업이 주로 진출하였으며, 대부분 로컬 양로서비스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급·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시 전체 양로서비스기관 대비 비중은 아직 매우 작은 편<sup>24)</sup>

표 4. 상하이시 주요 양로서비스기관

구분	주요 기관명
재가	Active Global, 니치가칸(日医学館), 테신즈자(贴心之家), 게스트하우스(閣世塔豪)
커뮤니티	연장자케어홈(长者照护之家), 푸러캉(福乐康), 사구종합양로서비스센터(社区综合养老服务中心)
시설	르위예싱(日月星)양로원, 이쑤안(宜川)양로원, 카이젠(凯健)국제노인요양센터, 리에이(Riei)양로원

자료: 언론보도 종합.

■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집이나 집 인근에서 요양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

- 상하이시 노인의 61%가 집에서 요양하기를 바라는 반면, 양로서비스기관 입주를 바라는 노인은 11.2%<sup>25)</sup>
- 상하이시 정부는 각 커뮤니티에 노인 의료기관과 데이케어센터·소형 양로원을 설립해 노인이 집 근처에서 재활·간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방문 간호인력 확충과 방문요양서비스기술 향상을 추진

■ 또한 상하이는 양로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긴급 콜 서비스와 스마트 커뮤니티 등 인터넷·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로서비스 확대에도 주력

23) 上海市民政局(2016), 「上海市老年人口和老龄事业监测统计信息」, 고령친화산업 관련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없어,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지표를 통해 양로서비스업 규모 및 투자 수요를 가늠해봄.

24) 한국기업의 진출은 거의 없음. 상하이 상무위원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9).

25) 上海市老龄科学研究中心(2017), 「第四次中国城乡老年人生活状况抽样调查: 上海地区状况报告」.

- 중국정부는 2016년 상하이, 광저우(广州), 칭다오(青岛) 등 15개 도시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나 대다수 지역에서 본 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반면, 상하이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양로서비스 이용 비용의 85%를 대폭 지원하는 등 적극 추진<sup>26)</sup>
- o 현재 상하이 3개 구(區)에서 430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상하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sup>27)</sup>
- 노인의 집에 설치한 전용 설비나 노인 핸드폰을 통해 원격으로 생활·법률·심리상담 서비스, 24시간 건강컨설팅·진료예약·약품배달 서비스, 방문 가사·쇼핑·간호 및 긴급 콜서비스를 손쉽게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확대<sup>28)</sup>
- 상하이시 민항(闵行)구에는 각 방에 활동 감측센서를 설치해 돌발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고, 원격 영상통신이 가능한 TV를 제공해 가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춘 대형 양로원이 개원<sup>29)</sup>

표 5. 상하이시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

문건명	발표 연도	주요 내용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방법 (上海市长期护理保险试点办法)	2016	- 상하이시 3개 구(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양로서비스 이용 비용 85% 정부 지원
상하이시 노령사업발전 13.5 계획 (上海市老龄事业发展“十三五”规划)	2017	- 2020년까지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15.9만 개로 확대, 노인 간병인 7.8만 명 충원, 전 주민 양로보험 가입 - 모든 중대형 양로서비스기관에 의료시설 설립 - 각 커뮤니티에 노인 의료기관 설립, 데이케어센터·소형 양로원 확대 - 재활기기·스마트 무장애 생활용품·원격 케어·서비스로봇 연구개발, 스마트 양로 발전 - 고령친화산업 기업 육성 및 산업 규모 확대, 육성정책 마련, 상하이노령산업협회 설립, 박람회·포럼 개최 -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양로서비스기관과 협력 확대

자료: 「上海市老龄事业发展“十三五”规划」, 「上海市长期护理保险试点办法」.

■ 이 밖에도 상하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 스마트 양로용품 기술 개발 △ 노인서비스 기업 육성 △ 산업 발전정책 마련에 노력

- 재활기기·스마트 무장애(無障碍·Barrier Free) 생활용품·원격 케어·서비스로봇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노인 간호서비스·재활·문화오락·인테리어·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지역 노령산업협회를 설립해 고령친화산업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상하이의 첫 고령친화산업 종합 발전정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26) 정부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의 시범도시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상하이 다음으로 운영상황이 좋은 쑤저우(苏州)는 정부지원 비중이 상하이만큼 높지 않음. 상하이 Active Global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27) 상하이 노령과학연구중심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28) 「上海市失独家庭“安康通”援助服务项目启动实施」(2017. 3. 6), 上海市人民政府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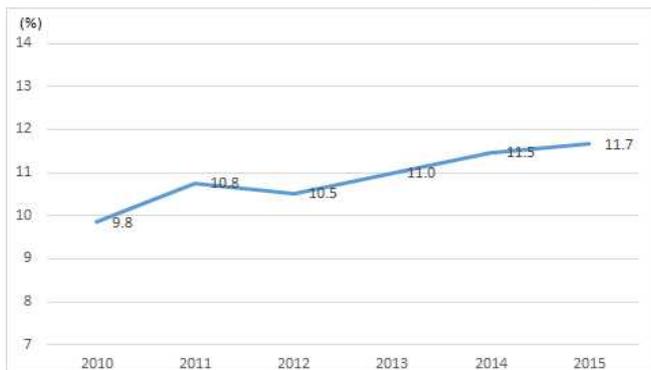
29) 「上海建成首个“海派文化智慧养老”国际化健康养老社区」(2017. 1. 7), 中国经济网.

## 나. 산둥(山東)

### 1) 고령화 현황

- 60세 이상 노인인구 최대 지역(2,057만 명)인 산둥성은 고령화율 및 노년층 잠재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台), 칭다오(靑島) 등 바다와 접한 동부지역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함.<sup>30)</sup>
  - 전체 인구(99.5만 명)는 허난성보다 적으나 노인인구는 전국 최대 규모로 노인인구가 매년 80~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고령화율(11.7%)이 중국 평균보다 1.2%p 높았음.<sup>31)</sup>
  - 중국 평균보다 5년 빠른 1994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고령화율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중 저령노인 비중(57%)이 높아(중국 평균 56.1%) 향후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많은 인구와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노년층 잠재 구매력이 3,128억 위안에 달함(중국에서 노년층 잠재 구매력이 3천억 위안 이상인 지역은 산둥성과 장쑤성뿐임).
  - 웨이하이의 2016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6.4%에 달하는 반면, 서부 끝에 위치한 짜오좡(棗庄)은 17.3%에 불과<sup>32)</sup>

그림 6. 산둥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2010~15)



자료: CEIC Database.

그림 7. 산둥성 노인인구 연령별 분포(2015)



자료: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2017), 「山东举行老龄事业发展暨城乡老年人生活状况调查成果发布会」.

###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산둥성은 양로서비스기관의 노인 천 명당 병상 수(37.1개)가 전국 평균(30.3개) 대비 양호한 편이나(2015년 기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2020년까지 노인 천 명당 병상 수를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외자 투자는 대형 고급 양로서비스기관 중심에서 노인 간호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변화 중<sup>33)</sup>

30) 「山东老年人口达到2057万, 威海老龄化程度最高」(2017. 4. 7), 大众网; 刘平(2013), 「山东省人口老龄化现状及对策」, 『山东工商学院学报』 Vol. 27, No. 4.

31) 「山东60岁以上老人超过2000万 系老年人口第一大省」(2017. 2. 5), 大众网; 산둥성 사회과학원 인구학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32) 「山东老年人口达到2057万, 威海老龄化程度最高」(2017. 4. 7), 大众网.

33) 2016년 산둥성 시설 양로서비스기관은 2,400여 개이며 이 중 1,300여 개가 공립, 1,100개가 민영임. 외자기업 개수는 진출 기준이며, 현재 운영 여

- 산둥성에 진출한 외자 양로서비스기업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투자 장려정책이 추진된 2013~14년 이후 진출하였으며, 주로 홍콩·미국·대만 기업을 중심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웨이하이, 칭다오 등 연해도시에 총 42개 진출
- 일본이 투자한 신화진(新华锦)국제요양센터, 대만이 투자한 아리산(阿里山)노인주택 등 대형 고급 양로서비스기관 진출이 많았으나, 비용이 저렴한 공립양로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최근에는 대형 고급 양로서비스기관 투자 프로젝트는 감소하고 노인 간호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큰 편<sup>34)</sup>
  - o 신화진 국제요양센터는 1인당 월 기본 이용료가 1만 위안인 고급 양로원으로, 중국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이 몇 천 위안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급 양로원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므로,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한 민영·외자 영리성 양로원의 입주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6. 산둥성의 주요 양로서비스기관

구분	주요 기관명
재가	니치가칸(日医学館), 첸시(千禧), 휘토우(汇投), 안강(安康)
커뮤니티	데이케어센터, 구취연장자케어센터(颐居长者照护中心)
시설	신화진(新华锦)국제요양센터, 아리산(阿里山)노인주택, 러텐(乐天)양로센터, 허상(鹤翔)양로센터

자료: 언론보도종합.

■ 산둥성은 최근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양로서비스 15분 생활권'을 목표로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확대에도 주력

- 이전에는 의료시설이 없어도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신규 양로서비스기관 설립 시 반드시 의료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칭다오, 옌타이를 중심으로 양로서비스기관 내 의료시설 확충이 활발함.<sup>35)</sup>
  - o 옌타이 러텐양로센터는 센터 건물 두 개 중 하나를 의료서비스 시설로 만들어 문진·입원·재활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sup>36)</sup>
  - o 칭다오 옌린(言林)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심혈관 치료가 가능한 양로원으로 리모델링해 긴급상황 발생 시 입주 노인이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sup>37)</sup>
- 산둥성 역시 여전히 전통적인 효 사상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편으로, 산둥성 정부는 데이케어센터를 늘리고 급식·목욕·청소·의료 보조 서비스를 각지에 보급함으로써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를 강화<sup>38)</sup>

부는 불확실함. 산둥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7), 산둥성 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34) 산둥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7); 산둥성 노년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7).

35) 산둥성 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36) 산둥성 노년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37) 「青岛成首批国家级医养结合试点 推广青岛模式」(2017. 4. 18), 大众网.

38) 양로서비스 발전에 매년 투입하는 10억 위안의 정부 지원금을 대부분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에 사용 중. 산둥성 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산둥성 사회과학원 인구학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 대표적인 노인용품 제조기지인 산둥성은 노인용품제조업 육성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제품 다양화에 힘쓰고 있음.

- 산둥성은 노인 의류, 재활기기, 노인용 식품·건강식품, 전동휠체어, 안마기 등의 노인용품 제조기지이나, 기술수준이 낮고 노인용품 전문 생산기업이 거의 없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노인용 핸드폰·경보장치, 노인 목욕부스, 기능성 내의 등 노년층의 새로운 수요에 맞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자 함.

표 7. 산둥성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

정책문건명	발표연도	주요 내용
노인용품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老年人用品产业加快发展的指导意见)	2011	- 의류·식품 및 건강식품·교통용품·재활기기·생활보조기기 및 가전산업 중점 발전 - 노인용품 기술 연구개발
양로서비스업 빠른 발전을 위한 의견 (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意见)	2014	- 2020년 노인 천 명당 양로서비스 병상 수 40개 이상으로 확대 - 외자 양로서비스기관 투자 장려
산둥성 양로서비스 업그레이드 실시방안 (山东省养老服务业转型升级实施方案)	2016	-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육성, 양로서비스기관에 의료시설 설치 - 고령친화산업 육성 강화: 여가·헬스 기능 갖춘 양로서비스기지 육성, 재활기기·식품·약품·의류 등 노인용품 및 노인 관광·보험상품 개발
산둥성 노령사업 발전 및 양로시스템 건설 13.5 계획 (十三五山东省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	2017	-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중점 발전, 농촌 양로서비스기관 확대 - 양로서비스기관 내 의료시설 설치, 중대형 종합병원 50% 이상에 노인 전문과목 마련, 65세 이상 노인 무료 건강검진 - 민영·외자 독자·합자·PPP 방식 양로서비스기관 투자 장려, 공립 양로서비스기관 병상 수 비중 20%로 축소 - 양로보험 가입률 90%, 장기요양보험제도 마련, 노인 재활·간병·심리상담 인력 육성

자료: 「十三五山东省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 「关于促进老年人用品产业加快发展的指导意见」 등 각 문건.

### 3. 외자기업 진출 사례

■ 유럽·미국·일본 등의 기업은 중국 노인 부동산, 노인 서비스, 노인용품 등 시장에 1990년대부터 진출해왔으며, 주로 고령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 연해지역에 진출

- 1990~2000년대 초반 미국 홀리데이, 독일 어거스틴 등 일부 기업이 중국 양로서비스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해 상하이에 퇴직자용 실버단지과 고급 양로원 등을 건설
  -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부양인구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직접 부양의 어려움 증가 등으로 향후 양로서비스 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sup>39)</sup>

39) The Seattle Times(2013. 4. 23), "Emeritus chairman charts senior projects in China."

- 2010년 이후 미국 에머리투스, 프랑스 오르페아 등 유럽, 미국의 대기업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와 협력하여 고급 요양시설 건설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 니치가칸, Active Global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 및 중국과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한 싱가포르·대만 기업은 방문 서비스·간호인력 교육 등 노인 서비스 분야에 주로 진출
- 일본의 유니참,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가 요실금팬티 사업에 진출했고, 보청기 분야 글로벌 6대 기업(GN, DANAVOX, SIEMMENS, STARKEY, OTICON, PHONAK)이 모두 진출해 있는 등 중국의 노인용품 분야에 유명 글로벌 기업 진출이 활발<sup>40)</sup>
-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은 노인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양로연금 등의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 고령친화 산업 기업 진출에 유리<sup>41)</sup>

■ 중국 양로서비스업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주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편이나 일부 기업은 중국정부의 육성정책을 잘 활용해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 중

- 에머리투스, 포트레스, 오르페아, 창러 등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력 있는 노인이 이용 가능한 고급 양로서비스시설을 설립
- 어거스틴, 오르페아 등 여러 외자 고급 양로서비스기관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용료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국 현지기업에 지분을 넘기고 철수<sup>42)</sup>
  - 어거스틴은 2006년 상하이에 고급 양로원을 설립했으나 고객 유치 실패로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프랑스의 오르페아가 2014년 난징시에 설립한 고급 양로원도 현재 중국기업이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sup>43)</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로서비스 업체는 중국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잘 활용하여 순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함.
  - 2013년 8월 베이징에 양로서비스 기관을 설립한 Sino-Ocean Group(远洋集团)은 정부의 낮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절약 등으로 2016년 하반기 흑자 전환됨.<sup>44)</sup>
  - 노인 간호서비스 기업 Active Global은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사업 확장 준비 중

표 8. 중국 고령친화산업에 투자 진출한 주요 외자기업

기업명	진출분야	진출지역	진출형태	주요 특징
게스트하우스 (閣世塔豪)	재가요양 컨설팅	상하이	일본 (독자· 합작)	- 2010년 상하이에 독자법인 게스트하우스(상하이)투자자문주식회사(閣世塔豪(上海)信息咨询有限公司)를 설립하여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양로사업 관련 컨설팅 제공 - 2016년 로컬기업과 합자형태의 후이지위엔(상하이)양로서비스발전 주식회사(慧知源(上海)养老服务发展有限公司)를 설립

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41) Nomura Research Institute(2012. 9), 「中国の高齢化社会が抱える課題と日本企業の事業機会」.

42) South China Morning Post(2016. 8. 16), “Why foreign nursing home operators struggle to make a profit in China.”

43) 기사에 따르면 중국민생투자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 노인요양기업으로 오르페아가 지목되고 있다고 언급 Jetro(2016. 3), 「中国高齢者サービス企業展開事例 調査報告書」; 「중민투, 유럽 노인요양기업 인수 추진」(2017. 3. 27), 뉴시스; 「媒体: 上海10年来投资的外资养老项目不少 但多失败」(2015. 8. 7), 凤凰网.

44) DBS Bank(2017. 3), “China Senior Housing: An Attractive Trap.”

표 8. 계속

기업명	진출분야	진출지역	진출형태	주요 특징
메디컬 케어 서비스 (美邸)	재가요양 요양시설	상하이, 난통	일본 (합작)	- 2011년 상하이에 지아리라이 가사관리 서비스 주식회사(上海家利来家政服务服务有限公司)를 설립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 이후 난통시에 루이츠메이디요양원(南通瑞慈美邸护理院)을 설립하여 일본의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리에이 (礼爱, RIEI)	요양시설 컨설팅	베이징, 상하이	일본 (합작)	- 2012년 진출하여 베이징·상하이에서 실제 운영노하우에 근거한 컨설팅 제공 - 상하이시에 리에이양로원 운영
포트레스 (峰堡, Fortress)	요양시설	상하이, 난통, 쑤저우, 광저우	미국 (합작)	- 2012년 Fosun Group(復星國際)과 합작하여 Starcastle Senior Living(星堡中环)을 설립 - 2013년 상하이 북부 변두리에 1만 8,000m <sup>3</sup> 의 고급 요양시설 설립
에머리투스 (Emeritus)	요양시설	베이징, 상하이	미국 (합작)	- 2012년 상하이시에 진출, 쉬후이(2013), 푸둥(2014)에 고급 요양시설 건설 - 베이징 노인아파트 사업은 중국 로컬 부동산 업체인 위엔양 띠찬(远洋地产)과 합작
니치가칸 (日医学館)	재가요양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산둥	일본 (독자)	- 일본의 선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및 간호인력 양성 - 노인용 소변팬티, 노인용 간호침대 등 위생용품 등을 판매
오르페아 (Orpea)	요양시설	난징	프랑스 (독자)	- 오르페아 그룹은 유럽 양로업계의 2대그룹 중 하나 - 2014년 난징시에 오르페아씨엔린국제요양센터(欧葆庭仙林國際颐養中心) 설립
창러 (长乐)	요양시설	칭다오	일본 (합작)	- 2013년 산둥성 칭다오시 진출 - 신화진 그룹과 합자방식으로 신화진(칭다오)창러요양서비스 주식회사(新华锦(青岛)长乐颐养服务有限公司) 설립 -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한 고급 노인간호시설 '신화진국제 요양센터' 설립
Active Global (活力国际)	재가요양 요양시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독자)	- 2014년에 상하이시에 진출한 방문간호서비스기업 - 2015년 소형요양시설을 설립해 요양서비스 제공
유니참 (尤妮佳)	노인용품	베이징, 상하이, 다롄	일본 (합작)	- 1995년 상하이시에 유니참주식회사를 설립해 진출 - 기저귀 전문 제조업체로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전용 기저귀를 통해 실버산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히라비 시스템 (日立systems)	양로관련 시스템	광저우, 상하이	일본 (독자)	- 2011년 광저우에 히라비시스템(광저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하이에 지점을 설립 - IT 인프라, 인터넷 구축, 시스템 운영, 서비스 유지보수 등의 기초플랫폼 구축·운영을 담당
OG 웰니스 테크놀로지	노인용품	상하이	일본 (독자)	- 의료기기, 복지용품 및 건강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앓은 채로 목욕할 수 있는 노인욕조가 주력 제품
파라마운트 베드 (八乐梦床业)	노인용품	우시, 상하이	일본 (독자)	- 2005년에 우시에 파라마운트(중국)주식회사(八乐梦床业(中国)有限公司)를 설립하고, 이어 상하이시에 지점을 설립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의료용 침대를 제작

자료: Jetro(2016. 3), 「中国高齢者サービス企業展開事例 調査報告書」; DBS Bank(2017. 3), "China Senior Housing: An Attractive Trap";

파라마운트 공식 홈페이지(<http://paramountbed.com/>).

## 가. 중상류층 타깃의 고급 서비스시장 진출: 에머리투스(상하이), 창러(산둥)

■ 미국 최대 양로기업인 에머리투스는 2012년 상하이에 진출해 중국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양로서비스기관을 설립했으나, 부진한 입주율, 모기업의 합병 등으로 현재는 중국 내 양로서비스 사업이 축소된 상태

- 에머리투스 시니어 리빙(Emeritus Senior Living)은 2012년 미국의 의료전문 투자기업인 컬럼비아 그룹(Columbia Pacific Management)과 공동으로 상하이에 카이젠귀지(凯健国际) 법인을 설립, 2013년 상하이 쉬후이(徐汇)구, 2014년 상하이 푸둥(浦东)구에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갖춘 고급 요양시설을 건설<sup>45)</sup>
  - 카이젠귀지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장삼각 지역에 5년간 12억 위안을 투자해 40여 개의 요양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2016년 기준, 쉬후이점의 28명 직원 중 23명이 의료 인력으로, 요양시설에 의사가 상주하여 고령자의 만성질환을 관리·치료하고, 시설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입원수속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외자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진출이 지연되었으며, 개업 후에는 낮은 입주율로 어려움을 겪음.
  - 진출 과정에서 민정국 등 관련부처에 구체적인 정책 기준이 없어 카이엔귀지가 주도적으로 상하이시 공무원들과 관련 TF를 꾸려 사업 승인을 받아야 했음.<sup>46)</sup>
  - 중국 노인들의 양로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 높은 비용 등의 문제로 쉬후이점의 입주율이 25%까지 하락하고, 다른 지점도 개업 이후 줄곧 적자상태에 처하는 등 성과가 부진하였으며, 저조한 입주율은 쉬후이점을 비롯한 카이젠귀지 모든 프로젝트의 만성 적자를 초래<sup>47)</sup>
- 에머리투스는 진출 시 장기 운영을 통한 사업 안정을 꾀했으나, 2014년 에머리투스가 미국의 다른 기업에 합병된 후 합작법인인 카이젠귀지의 중국 요양시설 사업이 축소되었고, 현재는 공동 투자자인 컬럼비아 그룹의 주 업무분야인 의료 분야로 중심사업이 전환된 상태

■ 일본 유명 간호업체인 창러는 초기 자본투자의 방식으로 중국 국유 서비스기업과 협력해 산둥성에 고급 양로원을 설립했으나, 운영이 안정화된 현재는 자본을 회수하고 경영·관리 서비스만 제공 중

- 일본 간호업계 최초의 상장기업인 창러는 2013년 중국 국유기업인 신화진(新华锦)그룹과 함께 3억 위안을 투자해 산둥성 칭다오시에 신화진국제양로센터를 설립함.
  - 신화진그룹은 산둥성 서비스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기업으로, 주 사업분야는 국제무역,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양로서비스업임.<sup>48)</sup>
- 신화진국제양로센터는 1인당 월 기본 이용료가 1만 위안에 달하는 고급 양로원으로, 유럽 호텔풍의 건물에서 일본

45) 凯健国际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3년 상하이 쉬후이(徐汇苑), 2014년 상하이 푸둥(浦东苑), 위엔양띠찬(远洋地产)과 합작하여 지은 베이징 고급 노인아파트(椿萱茂·凯健), 닝보(宁波)공 영업개시 예정), 네 곳의 서비스 기구를 운영 중임. 카이젠귀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kaijiancare.com/>).

46) 「外资养老沉浮」(2014. 3. 31), 凤凰网.

47) 2015년 카이젠귀지가 추진하던 쉬후이·푸둥·베이징의 3개 프로젝트 모두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음. 「母公司Emeritus被出售 凯健国际业务重心从养老转向医疗领域」(2015. 8. 24), 北京报道.

48) 신화진 그룹 공식 홈페이지(<http://jp.hiking.cn/>).

- 의 선진 간호기술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노인을 케어하고 다양한 의료시설과 오락문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산둥 성뿐만 아닌 중국 각지에서 온 노인이 이용<sup>49)</sup>
- 모든 방에 산소호흡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의사대기 시스템을 구비하여 간호서비스, 의료진찰, 건강관리, 건강 상담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수영장, 노래방 등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인근에 골프장이 있어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 가능
- 현재 창리는 자본을 회수하고 양로원 경영·관리서비스만 제공하며, 신화진국제양로센터는 신화진이 독자로 운영 중<sup>50)</sup>
- 중국의 로컬 양로서비스기업은 양로원 경영기법이 부족해 일본 등 외국 선진기업에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sup>51)</sup>

## 나. 정책 수요 맞춤형 진출: 니치가칸(상하이, 산둥 등), Active Global(상하이)

- 니치가칸은 선진 양로서비스기술을 보유한 일본 최대 양로서비스 제공업체로, 중국정부가 양로서비스 분야 외자 도입 및 재가 양로서비스 발전을 중시함에 따라 2013년 중국 로컬기업과 협력해 방문간호와 간호인력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 니치가칸은 의료, 간호·헬스케어, 간호교육이 주력 사업인 양로서비스 기업이나, 2013년 이전에는 중국 내 간호보 험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중국 노인용품 시장에 먼저 진출
  - 2013년 이후 중국정부가 선진 양로서비스 도입을 위해 외자 양로서비스기관의 투자를 장려하고 재가 양로서비스 육성을 중시하자, 니치가칸은 중국 로컬 가사서비스기업과 합작하여 중국 양로서비스시장에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현재 베이징·상하이·광둥·장쑤·저장·산둥·랴오닝 등 여러 지역에서 방문간호서비스와 간호인력 교육사업 수행 중
    - 중국정부는 선진 양로서비스를 전수받고자 전문적인 노인 간호기술을 보유한 니치가칸의 중국 진출 프로젝트를 독려
    - 니치가칸은 2015년 기준 의료연계사업 790건, 간호·헬스케어 사업 94건, 교육사업 34건을 진행 중<sup>52)</sup>
  - 산둥성 진출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은 편으로 산둥 로컬기업인 런더즈후와 함께 2015년부터 공동사업 시작
    - 산둥성 주민은 상하이 등지보다 구매력이 높지 않고 보수적이어서 소비 경향이 낮아 보여 진출이 늦어짐.<sup>53)</sup>
  - 외자기업의 투자가 주로 중국의 대형 양로원·양로주택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니치가칸의 진출은 재가 양로서비스 발전을 중시하는 중국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모델로 평가되고 있음.<sup>54)</sup>

- 싱가포르 방문간호기업인 Active Global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부족으로 상하이시 진출 초기에 어려움을

49) 신화진 그룹 공식 홈페이지(<http://jp.hiking.cn>).

50) 산둥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1).

51) 「中国での高齢者向けビジネスを探る」(2014. 8. 7), 닛케이. <http://techon.nikkeibp.co.jp/article/COLUMN/20140731/368346/?P=3>.

52) 산둥성 런더즈후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니치가칸 공식 홈페이지(<http://www.nichigakkan.co.jp/>).

53) 산둥성 런더즈후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54) DBS Bank(2017. 3), "China Senior Housing: An Attractive Trap."

겪었으나,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해 노인 간호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sup>55)</sup>

- 치매노인 간호 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Active Global은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수준이 홍콩·싱가포르와 유사한 상하이시에 2014년 독자로 진출
- 그러나 당시 중국은 치매와 같은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기술이 거의 없어 Active Global의 서비스가 비교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 초기에는 전문 간호서비스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낮아 서비스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Active Global의 간호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이 수행하나, 중국에서는 간호서비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상당한 구매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던 상하이시 노인들이 중국 현지기업보다 높은 서비스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내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
- 2015년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적 시행으로 Active Global 서비스료의 90%를 시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률이 늘었음.
- Active Global은 현재 60m<sup>2</sup> 규모의 소형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10개 요양소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임.
- 중국이 스마트 양로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Active Global은 프랑스·스페인계 기업과 제휴해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동 넘어짐 감지 팔찌 판매사업도 병행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중<sup>56)</sup>

## 다. 우수한 기술과 합리적 가격을 활용한 진출: 바이오웰니스(상하이)

- 한국의 스파장비제조업체인 바이오웰니스는 가격 대비 우수한 기술에 힘입어 2016년 상하이시 산하 양로서비스기관에 노인용 욕조를 시범 수출했고, 욕조 시범 수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인용품 판매 루트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음.<sup>57)</sup>
  - 바이오웰니스는 중소기업이지만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문 열리는 욕조로 국내 디자인 의장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문 열리는 욕조를 보바스재활병원, 실버타운헤리티지스파 등 한국의 주요 양로서비스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호주, 슬로바키아, 미국 등에도 수출<sup>58)</sup>
  - 바이오웰니스의 제품이 우수한 품질을 갖췄으나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한 상하이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시정부가 운영하는 후아이 엘더 케어센터에 시범적으로 노인용 욕조를 납품하게 됨.
    - 시범 판매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하이시 정부는 이용자 반응을 참고해 2~3년 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피력
  - 급속한 고령화로 상하이시에 노인주택, 실버커뮤니티 등의 양로서비스기관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 바이오웰니스는 특허기술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국에 노인용 욕조, 노인용 간병침대 등 다양한 제품 공급을 기대<sup>59)</sup>

55) 상하이 Active Global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56) Jetro(2016. 3), 「中国高齢者サービス企業展開事例 調査報告書」.

57) 바이오웰니스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8. 2).

58) 바이오웰니스 공식 홈페이지(<http://www.biowellness.co.kr/>).

59) 바이오웰니스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8. 2).

##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나, 2015년 10.5%인 고령화율이 2035년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관련 제도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시장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는 양로서비스업 육성 의지가 특히 큰 편으로 외자 도입에도 적극적

- 다른 국가와 달리 1인당 GDP가 1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노년층의 구매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노인용품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규격 제도 등이 현재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
- 노인용 식품, 의수·의족과 같은 생활보조기기 등의 노인용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며, 고령친화산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직 양로서비스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보급되면 노인들의 양로서비스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
- 중국정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적인 양로서비스기관 경영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껴, 2013년부터 민영·외자 양로서비스기관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외자 독자·비영리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범위 제한을 점차 줄여가고 있음.

■ 외자기업은 중국정부가 최근 중점 발전시키고 있는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관련 분야 진출이 유망할 것이나 양로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아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 기업은 양로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및 첨단 노인용품 등 우위를 가진 분야 수출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중국은 치매 노인 케어와 같은 전문 간호기술을 갖춘 양로서비스기관 및 간호인력이 부족해, 전문 간호기술을 보유한 방문간호서비스 기업 및 간호인력 교육서비스 기업에 대한 유치 수요가 큰 상황
-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노인 간호 전문기업인 Active Global의 사업이 활성화된 것은 상하이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범 실시해 양로서비스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 중국은 최근 대형 양로서비스기관에 의료시설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노력 중으로, 재활·심혈관 등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수요가 큰 편
- 바이오웰니스의 '노인용 욕조' 사례와 같이 첨단기술이나 특수 디자인을 갖춰 요양시설 내 노인의 편의를 확대하는 노인용품, 재가 양로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가정용 헬스케어기기나 휴대용 건강검진기기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임.<sup>60)</sup>

60) 한국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노인용 침대, 욕실용품, 자동화된 주방도구 등 분야가 중국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편. 바이오웰니스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8. 2).

■ 우선협력 지역으로 유망한 상하이시는 고급·첨단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이 유리하나 외자기업간 경쟁이 심할 것이며, 산둥성은 고령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칭다오, 웨이하이 등 일부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대상 양로서비스 및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지역간 고령화 격차가 커, 상하이, 산둥, 저장, 쓰촨, 랴오닝과 같이 고령화 진전이 빠르며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도 큰 지역을 우선협력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상하이시 대도시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로서비스 이용 노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큰 지역으로 고급·첨단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이에 에머리투스, Active Global과 같은 유명 글로벌 기업이 일찍이 진출함.
- 산둥성은 노인인구는 많으나 농촌지역 고령자가 많고 상하이·저장 등에 비해 1인당 구매력이 낮은 지역으로, 지역 내 대도시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양로서비스 진출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양로서비스기관의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바 노인질환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수요가 클 것<sup>61)</sup>

■ 한국은 중국 고령친화산업 시장 후발주자로, 우리 정부는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홍보를 도울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중국 고령친화산업 정책 동향과 틈새시장을 파악해 중국 진출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

- 중국의 지방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부·협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이나 기업에 관해 잘 인지하지 못한 편이며,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소규모인 곳이 많아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홍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sup>62)</sup>
- 진출 유망지역 중 하나인 산둥성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부부처는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일본, 대만과 지속적으로 고령화 정책 소개 및 양로서비스기관 방문 등의 교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sup>63)</sup>
- 중국 고령친화산업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일본은 자국의 고령친화산업 우수기업 편람을 중국어로 제작해 박람회·기업 교류회 같은 행사에서 중국 측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홍보를 돕고 있는데, 우리도 홍보의 한 방안으로 이러한 소개 자료를 제작·활용할 수 있음.
- 재가·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육성정책에 힘입어 니치기간과 Active Global 등이 중국사업을 추진하고, 일본 기업만큼의 인지도를 갖추지 못한 바이오웰니스가 우수한 기술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측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 정책 동향과 틈새시장 파악이 긴요 **KIEP**

61) 산둥성 상무청·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6, 7. 17).

62) 산둥성 노년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7), 바이오웰니스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8. 2).

63) 산둥성 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7).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민주. 2017. 「中, 고령화시대에 성인용 기저귀시장 고속 성장」. KOTRA 해외시장뉴스.  
 선우덕. 2012. 「중국의 고령화시대, 새로운 시장 만든다」. *POSRI Chindia Journal*, Vol. 73.  
 이봉걸, 홍정화. 2014. 「새로운 블루오션 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KITA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 [중문자료]

-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17. 「山东举行老龄事业发展暨城乡老年人生活状况调查成果发布会」.  
 「老龄化的危与机」. 2011. 凤凰网. (6月23日)  
 刘平. 2013. 「山东省人口老龄化现状及对策」, 『山东工商学院学报』 Vol. 27, No. 4.  
 「媒体: 上海10年来投资的外资养老项目不少 但多失败」. 2015. 凤凰网. (8月7日)  
 「上海建成首个“海派文化智慧养老”国际化健康养老社区」. 2017. 中国经济网. (1月7日)  
 上海市老龄科学研究中心. 2017. 「第四次中国城乡老年人生活状况抽样调查: 上海地区状况报告」.  
 上海市民政局. 2016. 「上海市老年人口和老龄事业监测统计信息」.  
 「上海籍人口老龄化比例将超日本 2050年或达44.5%」. 2016. 新华网. (6月5日)  
 「山东老年人口达到2057万, 威海老龄化程度最高」. 2017. 大众网. (4月7日)  
 「山东60岁以上老人超过2000万 系老年人口第一大省」. 2017. 大众网. (2月5日)  
 「外资养老沉浮」. 2014. 凤凰网. (3月31日)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 2014.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青岛成首批国家级医养结合试点 推广青岛模式」. 2017. 大众网. (4月18日)  
 韩枫. 2017. 「中国人口老龄化地区差异收敛的解释」. 『老龄科学研究』, Vol. 5, No. 3.

### [일문자료]

- Jetro. 2016. 「中国高齢者サービス企業展開事例 調査報告書」.  
 Nomura Research Institute. 2012. 「中国の高齡化社会が抱える課題と 日本企業の事業機会」.

### [영문자료]

- DBS Bank. 2017. 3. “China Senior Housing: An Attractive Trap.”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 8. 16. “Why foreign nursing home operators struggle to make a profit in China.”

### [웹사이트]

- CEIC Database. [www.ceicdata.com](http://www.ceicdata.com)

## [인터뷰]

- 바이오웰니스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8. 2).
- 산둥성 노년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 산둥성 런더즈후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 산둥성 민정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 산둥성 사회과학원 인구학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18).
- 산둥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1).
- 상하이 노령과학연구중심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7. 7. 20).
- 상하이 상무위원회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19).
- 상하이 Active Global 관계자 인터뷰(면담일: 2017. 7. 20).